碩 士 學 位 論 文

일본어「ダロウ」연구

-「デハナイカ」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金 勝 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康 文 瑄

2006年 8月

일본어「ダロウ」연구

-「デハナイカ」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金 勝 漢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康 文 瑄

康文瑄의 敎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8月

審査委員長_____印

審 査 委 員_____印

審 査 委 員_____印

<국문초록>

일본어「ダロウ」연구

-「デハナイカ」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康 文 瑄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指導敎授 金勝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대일본어의 「ダロウ」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추량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실제의 예를 분석해보면 추량적 의미 이외에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대화상에서 담화적 의미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ダロウ」의 의미를 단순추량과 담화적 표현으로 나누어 각 각의 용법이 성립되는 조건에 따라 의미 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흔히 담화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デハナイカ」의 의미 용법에 대해 알아보고「ダロウ」의 담화적 표현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ダロウ」와 「デハナイカ」표현의 바르고 정확한 사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따라서「ダロウ」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 고찰하고,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미묘한 의미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두 표현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는 「ダロウ」의 용법을 크게 단순추량과 담화적 용법으로 나누어 살피고, 4장에서는 「デハナイカ」의 담화적 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5장에서는 담화적 용법의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의미 비교를 통하여 이들 표현의 상호치환이 가능한 경우와 상호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살

※ 본 논문은 2006년 6월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펴보았다.

첫째, 「ダロウ」의 의미용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단순추량과 담화적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담화적 용법에 있어서는 확인요구용법과 공통인식환기, 동의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화자와 청자가 갖는 정보량이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따라 서로 다른 용법으로 나타나며, 문말의 인터네이션이 상승인가, 하강인가에 따라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추량용법의 「ダロウ」와 함께 쓰이는 부사와 담화적 용법의 「ダロウ」와 함께 쓰이는 부사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확인요구용법은 화자가 추측한 사실에 대해서 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말의 인터네이션은 상승(上昇)한다.

둘째, 「デハナイカ」는 화자와 청자가 갖는 정보량에 따라서 확인요구와 공통인식환기로 나눌 수 있다. 확인요구의 경우 정보량에서 우세한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문말에서 상승 인터네이션이 나타난다. 공통인식환기에서는 과거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부분에서 청자가 미처 기억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 「ほら」와 같은 부사가 함께 쓰여 일단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주려는 의도가 보이며, 문말의 인터네이션은 상승조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탄·놀람의 용법에서는 화자의 새로운 사태 또는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의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셋째,「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각각의 확인요구, 공통인식환기 용법은 서로 상호치환이 가능하다.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고유용법으로서는 각각 동의용구용법과 감탄·놀람의 용법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고유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치환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국문초록·····i

Ⅰ. 서론·····1

Ⅱ. 「ダロウ」·「デハナイカ」의 연구 흐름·····4
2.1「ダロウ」·····4
2.2「デハナイカ」·····5

Ⅲ. 「ダロウ」의 용법·····6
3.1 단순추량·····6
3.2 담화적용법·····12
3.2.1 확인요구·····12
3.2.2 공통인식환기·····14
3.2.3 동의요구·····16

Ⅳ. 「デハナイカ」의 용법·····18
4.1 담화적용법·····18
4.1.1 확인요구·····18
4.1.2 공통인식환기·····20
4.1.3 감탄·놀람·····23

Ⅴ. 담화적 용법의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의미 비교·····26
5.1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상호치환이 가능한 경우·····27
5.2 상호치환이 불가능한 경우·····29

Ⅵ. 결론·····33

参考文献·····35
Abstract·····3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언어활동의 기본적인 단위를 문(文)이라 한다. 이 때,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서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어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서술내용으로서 문의 중핵을 구성하는 명제(命題)부분이 나타나고 문말표현(文末表現)에는 그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적태도(心的態度)를 나타내는 표현인 모달리티(modality)[2]가 존재한다. 즉 문은 명제와 모달리티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일본어의 모달리티는 표현의 의도에 따라 확언(確言), 명령(命令), 금지(禁止), 의뢰(依頼), 당위(当為), 개언(概言), 부정(否定), 설명(説明)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이 이 논문에서 고찰대상이 되는 「ダロウ」는 개언(概言)의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형식이다. 한 명제에 대한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단정할 수 없는 추량(推量)의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추량의 용법으로 알려져 있는「ダロウ」는 그 의미·용법에 있어 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ダロウ」는 보통 아래의 (1)의 예문과 같이 표현되는 경우로 대표할 수 있다.

(1) たぶん、雨が降る　だろう
　　[명제]　[モダリティ]

---

2) 森山卓郎·仁田義雄·工藤浩(2000),『［日本語の文法3］モダリティ』, 岩波書店. p4
·“文の発話行為的な意味を規定するものであるから、基本的に話し手の発話時における述べ方を表す。”

3)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117

그러나 「ダロウ」의 추량용법은 「ダロウ」용법의 일부로서, 실제 담화 현장에서는 추량의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한편, 「ダロウ」와 「デハナイカ」는 일본어의 문말의 담화적 표현으로, 「ダロウ」와 「デハナイカ」는 둘 다 담화적 현장에서 상대방의 확인을 요구하거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들에게「ダロウ」와 「デハナイカ」는 그 의미 용법이 비슷하여 이들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ダロウ」와 「デハナイカ」를 구분 없이 사용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ダロウ」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デハナイカ」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문은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상호치환이 허용되는 예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冬月 : 何(なに)言ってんのよ. 今(いま)そんなこと関係ないでしょ。

(耳をすませば)

(2') 冬月 : 何(なに)言ってんのよ. 今(いま)そんなこと関係ないじゃないか。

(2)의 「ダロウ」는 담화적 용법을 나타내고 있다. (2)의「ダロウ」를 (2′)처럼 「デハナイカ」로 바꾸어 넣어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그러나 이들 표현이 항상 상호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 치환 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ダロウ」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 고찰하고,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미묘한 의미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두 표현을 비교하기로 하겠다.

이들 표현의 비교 고찰을 위하여 2장에서는「ダロウ」와 「デハナイカ」가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되어 오고 있는지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3장, 4장에서는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각각의 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5장에서는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의미·용법을 비교하여 이들 표현을 상호치환 하였을 때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용법을 고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문은 일본의 신문과 소설, 그리고 일본드라마 대본에서 발췌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문은 문형사전의 예문과 학자들의 예문을 재인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ダロウ」와 「デハナイか」의 연구 흐름

2.1 「ダロウ」

「ダロウ」는 단정의 조동사 「だ」의 미연형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서 추량의 조동사로써 인정되고 있다.[4] 寺村(1984)는 「ダロウ」를 확언(確言)의 모달리티[5]에 대립하는 개언(概言)의 모달리티의 범주 안에 넣고, 그 기본적인 의미를 「話し手自身の発話時の心の状態の直接的表現」이라고 주장하고 있다[6]. 寺村와 함께 益岡(1991)또한 「ダロウ」의 의미를 추량용법과 담화적 용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寺村와 益岡는 추량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담화적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청자의 지식정보와 관련지어 담화적 용법의 「ダロウ」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森山(1989)로부터 시작된다. 청자의 지식정보라는 요소가 화자의 발화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후 金水(1992)는 담화적용법에 중점을 두어 확인요구의 「ダロウ」를 화자의 추론에 의한 지식으로 상대방의 경험적 지식을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그 확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金水에 이어 鄭相哲(2004)에 이르러서는 화자와 청자가 갖는 정보량의 크기에 의해 대화 내용의 의도는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4) 日本国語大辞典(1980), 小学館, p1585.

5)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p117～134 参照.
・確言のモダリティ : ある事態を自分の信念といて相手に知られるもの.
・概言のモダリティ : ある事態が真とは断定できない知識を述べるもの.

6)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p219 参照.

2.2 「デハナイか」

「デハナイカ」는 일반적으로 담화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아래와 같은 예문으로 표현된다.

(3) 缶紅茶って、甘いの多いじゃないですか。(下降音調)
だから、お砂糖ゼロのティオ… (石井1998:1)

(3)의 「デハナイか」표현은 현대 일본어의 담화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이 예문에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화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デハナイか」의 연구에는 「デハナイか」의 담화적 기능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정보관계에 중점을 둔 森山(1989)의 연구가 있다.
森山는 「デハナイか」에 의해서 서술되는 내용은 보통 명제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확인의 용법을 중심으로 「デハナイか」의 용법을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蓮沼(1995)의 연구에서 蓮沼는 회화표현에서 사용되는 「デハナイか」의 표현에 관심을 가져 확인요구표현을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ダロウ」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들 표현에 있어 뉘앙스 차이와 인터네이션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Ⅲ. 「ダロウ」의 용법

「ダロウ」는 일본어의 문말(文末)에서 추량용법으로 사용되는 조동사로 알려져 있으며 화자가 명제내용을 불확실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ダロウ」에는 추량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寺村(1984)는 개언(概言)의 조동사를 「だろう, かもしれない, みたいだ, ようだ, らしい, そうだ」등으로 분류하여 「ダロウ」를 추량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보고,

> 「だろうは概言的表現の中で自分がこうだと考え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自分自身は当然何かの拠りどころをもっているのがふつうだがそのことを相手に知らせる意識はないときに出てくる表現である。」
> (「だろう」는 개언적표현의 하나로 자신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자신은 당연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의도는 없는 경우에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정의 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私の考えでは」정도의 의미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益岡(1991)[7]는 「ダロウ」의 추량용법에 대해서는 寺村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추량용법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기본으로 하고 화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상대방의 확인을 요구하는 표현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ダロウ」의 담화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7)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pp77~91 参照.

3.1 단순추량

「ダロウ」[8]는 현대 일본어에 있어 추량표현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형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자의 추량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4) 敦子「ただの遅刻だと思いますけど…」
里美「学校に電話がないから……たぶん遅刻でしょ……わかった。
ホームルームに行って……後で電話してみる」
敦子「はい……失礼します……」 (安達1992:28)

(4)는「어느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대화 내용에서「학교에 연락이 없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추측하고 있는 문장으로 추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문장이다.

추량은 문말에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화자의 입장과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낸다. 단정이라는 것은 화자가 어떠한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분명한 태도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량은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단정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国語大辞典[9]에 의하면 추량은 「何かを手がかりにして、事情や心中などをこうだろうと想像すること。推察、推測。」이라고 정의하고, 「あることをもとにしてこうだろうと判断すること。推測して決定すること。」또는「はっきりしない事実を、その反対の証拠があがるまでは、真実のものと認めておくこと。」등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즉, 추량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8)「ダロウ」에 해당하는 형식은 ダロ、デショウ、デショ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ダロ」는 「ダロウ」의 축약형, 「デショウ」는 정중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ダロウ」의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9) 日本国語大辞典(1980), 小学館, p1585.

의 개연성이 있는 사태에 대하여 추측하여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伊東は父の出身地だけに、親戚も多い。そのうちどこか一軒に泊めてもらえばなんとかなるだろう。 (一家ランラン, p194)

(6)「ごめんなさいね。遅れちゃって。」
「大丈夫だよ、」
1時間くらいの遅れなら取り戻せるだろう。 (中吊り, p51)

(5)의 예문에서는 화자가 「ダロウ」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伊東에 친척이 많기 때문에 숙박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숙박 문제의 해결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에서도 역시 「1시간정도 늦은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 되 수 있다.

또한, 寺村(1984)는 「ダロウ」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ダロウという形で推量の表現をするのは、その根拠が自分個人の知識や経験だけによる場合で、その点で結局は確信的な断定のダと大して変わらないとも言える」

(「ダロウ」의 형태로 추량을 표현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자신의 의식이나 경험만에 의한 경우로, 이러한 점에서 확언적 단정의 「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을 뒷받침 해주는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7) 例えば、自分の家の隣に外国人が引っ越してきたとする。
やはり、最初は驚き、戸惑ってしまうだろう。
(五体不満足, p262)

(7)의 예문은 화자 자신의 이웃에 외국인이 이사 왔다고 가정하고, 그 때의 자신의 감정으로 미루어볼 때,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ダロウ」의 추량의 근거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추측에 의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추량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10] 보다 단순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ダロウ」가 주관적인 표현만을 다루지만은 않는다. 예를 들어,

(8) これまでは女性・女系天皇を認めるかどうかが大きな争点だった。そこへ、具体的な皇位継承順位をめぐる問題が浮かび上がってきたのである。紀子さまの出産の前に、改正案が提出されれば、国民の意見は大きく割れるだろう。 (朝日新聞, 2006. 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에서처럼 공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신문사설 등에서 「ダロウ」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8)의 사설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경험,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정보, 즉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이다.

한편, 「ダロウ」가 추량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きっと」,「たしかに」,「かならず」,「ぜったい」,「おそらく」,「たぶん」,「ひょっとしたら」,「もしかしたら」등의 진술부사(혹은 그에 상당하는 句)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11].

---

10)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128 参照.
「証拠のある推定を表す形式には、助動詞のらしい,ようだ,みたいだ,はずだがある。これらは、ある具体的な証拠から推論によって得た知識を述べるための形式である。」

11) 森山卓郎·仁田義雄·工藤浩(2000), pp189~190 参照.

(9) 少年の日々をあのあたりの山野で過ごした。山頂のえきから茶臼だけへと向かうコースは女の希望にきっとかなっているだろう。

(中吊り, p50)

(10) 緊張の原因になってしまった上司はきっと待ちかねているだろう。浅草橋を過ぎて、隅田川にさしかかった。 (中吊り, p253)

(11) 死ぬ時には平等な世界に生まれる。しかし一方で、生きている間にも仏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心の中にごみさえためなければいい、それだけなんです。禅の修行はたしかに厳しいでしょう。しかし、人間が本来生きている、その場所こそが真実なんです。生きているのはその場所にしかない。それを生かすのが仏教の考え方なんです。

(読売新聞, 2005.7.13)

(12) 今の私が、わりと気軽に友達の家を泊まり渡れるのも、きっとそんな幼児体験が根っこにあるからだろう。 (一家ランラン, p14)

(13) 明治生まれの祖母にはきっと通じないだろう。 (一家ランラン, p12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きっと」,「たしかに」등의 부사는 개연성(蓋然性)의 정도가 높은 부사[12]에 속하며 「ダロウ」구문과 자연스럽게 함께 쓰인다. 개연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문(文)의 내용에 대해 화자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たぶん」,「おそらく」의 부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14) 彼はたぶん約束の時間には間に合わないだろう。

(14)는 「ダロウ」가 「たぶん」과 호응 하여 「그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たぶん」은「おそらく」와 비슷한 의미를

12) 権珍美(2001), 「「だろう」의 意味와 用法에 관한 一考察」, 漢陽大學校大學院, p37 参照.

가지지만, 「きっと」와 비교했을 때, 확신의 정도가 낮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5) 角田 : もし、別の状況で「モモ」を読んだら、感じ方が違ったんでしょうね。
小泉 : 好きだ、という気持ちは変わらないと思うけど、たぶん感じることは違ったでしょう。 (読売新聞, 2005.10.27)

(16) 携帯電話でアンケートするとよいのでは」と高校生なりに考えたのですが、たぶん正しい情報を入力してくれる人は少ないでしょう。それが、あるとき占いに遭遇し、「占いなら、必要な年齢や性別、地域、職業という大属性を、正しく入力する」と思いつきました。
(読売新聞, 2005.12.7)

(17)「ローン控除」住民税で調整へ」
2006年度税制改正大綱も年初に閣議決定され、順調にいけば3月末、国会で可決承認されます。(読売新聞, 2006.2.2)

(18) おそらく、待ったの一番の理由は、僕を知らないことからくる不安だろう。
(五体不満足, p21)

(19) おそらく、体が大きくなって、奥へ進めなくなったせいだろう。
(一家ランラン, p154)

(20) 宿題なんかはケロッと忘れてしまうけど、その手のことは何年たっても、おそらく一生忘れないだろう。 (一家ランラン, p104)

「たぶん」,「おそらく」는 개연성의 정도가 중간정도인 부사에 속하며 개연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문의 내용에 대해 화자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으나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하는 쪽으로 조금 기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ダロウ」는 개연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부사의 차이로 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 「ダロウ」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가 있다. 화자가 문의 내용에 대해서 강한 기대를 갖고 있으나. 화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납득시키려하는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3.2 담화적 용법

3.2.1 확인요구

「ダロウ」에는 추량용법 이외에도 주로 담화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확인요구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21) 二次会、マキちゃんも来るでしょ？ (同窓会, p64)
(22) 「ねえ、お兄ちゃん、おなか空いてるでしょ。パン持ってきたの。食べる?」
「……」
「どうしたの？」 (一家ランラン, p215)
(23) 「そうね、一度行ってみたいな……」
「旅行なんてしてないでしょ?」
「工場の方があるから、なかなかね」 (同窓会, p107)
(24) 「ちょっと直子、ベロ見せて」
「……はーい……」
「直子、キャンディー食べたでしょう」 (一家ランラン, p163)

(21)은 「マキちゃんも来る?」라는 사실에 대해서 マキ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2)에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 청자본인이 느끼는 것이므로 청자가 화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확인의 행위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막연한 정보(또는 상상에 의한)에 대해 확인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23)의 예문 또한 여행을 가 본 것에 대한 것은 청자 자신의 경험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화자보다는 청자가 정보량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의 예문에서 화자는 청자의 혓바닥의 상태를 보고 사탕을 먹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청자인 直子에게「キャンディー食べた?」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문장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처럼 확인요구표현[13]은 화자의 확신이 결여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확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인요구표현은 정보량에 있어서 청자가 화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대화 내용의 정보를 청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한편, 확인요구용법인 경우 「きっと」, 「たぶん」, 「おそらく」, 「さぞ」등의 추량부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5) 「あなたが行ってる高校は、きっと女ばかりの学校でしょう」
「はい」 (仁田1996: 268)

(26) 「遠くから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さぞお疲れでしょう。」
(文の述べ方, p42)

(25)는 화자 자신의 추측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인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부사 「きっと」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고, (26)역시 화자 자신의 짐작으로 청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부사「さぞ」와 함께 쓰여 대화 내용의 의미 전달을 더욱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의미로 사

13) 安達太郎(1999), 『日本語疑問文における判断の諸相』, くろしお出版, p139 参照.

용되고 있다.

3.2.2 공통인식환기

다음은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27) 菊子：「どうする? 別の場所に回ってみる?」
広菜：「でも、どこも同じでしょ?」 (同窓会, p152)

(28)「どうして私の名前だけ違うの?」
「“子“は一緒でしょ！」そんなもの言われたら、クラスの半数と姉妹に
なっちゃうじゃないか。私がクラスの名簿を持ち出して、
「こんなに“子“のつく子がいるんだよ。」 (一家ランラン, p7)

(29) A: 俺さ、最初に会った頃、言っただろ、車椅子から見える景
色ってどんなんだろうなって。
B: ああ、言った言った。
A: あれ、無神経だったかな。 (beautiful life)

(30)「ほら、花ちゃんだって、振り返ってごらんよ。高校3年生の、最後の春
休みよ。みんなでディスコ行ったでしょ。」
花子は私の勢いに圧倒されたみたいに、こくんとうなずいた.
(同窓会, p14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7)의 예문은 서로 돌아 보여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딜 가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청자와 함께 공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표현이다. (28)에서는 형제들의 이름 중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만이 다른 것에 대해 의문·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름에 子가 들어있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도 이미 알

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9)에서 A는 자신의 과거의 무신경한 발언이 B를 상처 입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을 담은 대화의 내용으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청자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고 있는 표현이다.

(30)의 예문에서 「ディスコ」에 갔다는 사실은 청자와 화자 둘 다 공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다 같이 ディスコ에 갔었잖아」로 해석 될 수 있는 문장이다.

한편 과거의 사실,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환기시키는 용법을 가졌다는 점과 연관 지어 공통인식환기용법의 「ダロウ」와 함께 쓰이는 부사를 생각할 수 있다.

「ダロウ」의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은 정보의 양적인 면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정도에 해당하지만 과거의 사실에 대해 청자가 미처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30)에서처럼 「ほら」를 사용함으로서 청자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인식환기 용법이 확인요구용법과 구별되는 점은 화자와 청자가 갖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으로. 확인요구용법은 정보의 양에서「화자<청자」의 관계가 성립하며,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에서 정보의 양은「화자≒청자」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함께 쓰이는 부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2.3 동의요구

다음은 「ダロウ」의 동의요구의 용법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1)「だいじょうぶだと思うけどなあ。気を回しすぎるんだよ、花ちゃんは」

「でも、タカちゃんだって基本的にそうでしょ？」

「……まあ、ねえ……」 (同窓会, p18)

(32)「少し木が小さくなったのかな。なんだか林が明るくなった」

「ええ、ほら聞こえますでしょう」

耳をすますと何かかたいものをたたくおとが、澄んでひびいた。

(仁田1996：271)

(31)의 예문을 보면, 「花ちゃんは気を回しすぎる」의 사실에 대해서 화자인 花ちゃん이 청자 タカちゃん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タカちゃん도 그렇지 않느냐는 대화의 내용으로 해석되어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화자가 청자의 사고를 미루어 추측하는 상황으로서 자신과 동일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추측되는 청자에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량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2)의 예문에서는 화자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것을 청자도 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처럼「ダロウ」의 동의용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 또는 긍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의요구의 용법에서의 정보량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화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청자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의요구용법에서는 부사「ほら」와의 호응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3)「テレビに映るのに、そんなの着ていくの？」

「その下にね、白い襟付のシャツを合わせるんだ。ほら、そうすると、とても800円には見えないでしょ。」　（乙武レポート, p72)

(34) 明美は、部屋の隅にある小さな冷蔵庫からビール瓶を一本取り出すと、安っぽい盆にグラスを二つと湯飲み茶碗を一つ乗せて持ってきた。

「ほら、二人でビール一本じゃ足りないだろう?」　（中吊り, p161）

(33)은 화자와 청자에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그 현상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34)역시 「ビール一本」이라는 수량이 두 사람이 마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화자는 물론이거니와 청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도로 청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예문들은 화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사「ほら」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주장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ダロウ」의 동의요구 용법은 담화 속의 정보가 화자와 청자의 공동영역에 속하게 되므로「ほら」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デハナイか」의 용법

「デハナイカ」[14]는 명사를 단정하는 조동사 「だ」와 형용동사「だ」의 부정표현을 나타내는 「ではない」에 의문의 조사 「か」가 결합되어 하나의 조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허물없는 회화체 표현에선 「じゃない(か)」로 사용되기도 한다.

「デハナイカ」는 문장 내의 여러 조건에 의해 서로 다른 용법으로 나타난다. 이 단원에서는 「デハナイカ」의 예문들을 통해서 각 조건에 의해서 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4.1 담화적 용법

4.1.1 확인요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은 「デハナイカ」가 확인요구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

(35) お前、ひょっとしてその裁判所荒しの犯人じゃないの? (森山1996 : 263)

(36)「そういう夜遊びはしないタイプの子なんだよなぁ」
「なに? そんな真面目な子がジーンズを履くわけ? そういう子ってフリルつきのスカートじゃないの? ふーん、シーンズ履くんだ、それは珍しいね」
(同窓会, p154)

(35)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청자를 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운

14)「デハナイカ」의 표현은 상황에 따라 「ジャナイカ」,「ジャナイ」,「ジャナイノ」 등으로 어미의 축약, 대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표현은 「デハナイカ」로 통일하여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범인으로 예상하여 확인하고 있는 표현이 된다. 이때 청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진위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6)의 예문은 「そういう子」가 「주름장식이 달린 스커트를 입지 않나?」로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デハナイカ」가 확인요구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화자와 청자와의 정보량의 관계에 있어서 청자가 우위에 섰을 때 나타난다. 즉, 대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화자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청자에게 화자 자신이 추측한 정보를 확인하는 뉘앙스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デハナイカ」의 확인요구용법은 「ダロウ」의 확인요구 용법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デハナイカ」가 확인요구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문말에 나타나는 인터네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7)「ねえ、友達と仲間って同じじゃないの?」
「細かいことを言わないのっ」 (同窓会, p240)

(38) 彼のこと、覚えてない？この間、一緒にご飯食べたじゃない。
(文の述べ方, p42)

(39) あそこにひとが立ってるじゃない。あの人が私の先生です。
(森山1996：48)

(37)은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자는 「友達」와 「仲間」가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으나,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 확인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다. 화자의 판단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을 나타내고, じゃない(の,か)↗의 형태로서 〔~(아냐, 아니니, 아니냐,)↗〕[15]로 해석되어 의문의 사실을 상대에게 묻는

표현으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확인의 의미로 사용되는「デハナイカ」는 ～じゃない(の,か)↗의 형태로 사용되어 상대에게 묻는 어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에게 물어서 확인시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확인의 표현에서 서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의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회화에서는 「か」가 생략되어 「じゃない」의 형식으로 (38), (39)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보통 확인요구용법으로 사용되는 「デハナイカ」는 화자보다 정보량에서 우위에 선 청자에게 의문을 갖고 확인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문말에서 상승 인터네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4.1.2 공통인식환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デハナイカ」의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은 다음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40)「広菜ちゃんの気持ちもわかるけど……」
「そういうのもマキちゃんらしくていいじゃない (同窓会, p102)

(41) そんなことはどうだっていいじゃないか」と向うが言った。いつも、
できるだけあんたのためになるように、答えてきたつもりだ。
(中吊り, p216)

(42) 雫 : 勉強するのがそんなにえらいわけ!?
お姉ちゃんだって大学入ったら, バイトしかしてないじゃない!!
(耳をすませば)

(40)에서는 화자와 청자 역시 マキ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15) 「↗」는 상승인터네이션을 나타내며, 「↘」는 하강인터네이션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デハナイカ」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한 번 マキ다운 면을 인식시키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41)의 예문에서는 「그런 것 쯤 어떻든 상관없잖아」의미로 해석되어 「どうだっていい」라는 사실은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할만한 사항으로 표현되고 있다.
(42)의 예문에서는 언니로 등장하는 청자가 대학에 들어가서 バイト만했다는 사실을 화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大学入ったら, バイトしかしてない」의 사실을 청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ほら、高校の時 数学に堀先生っていたじゃない。覚えてる?
(文の述べ方, p83)

(43)에서처럼 「～いたじゃな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청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デハナイカ」에 선행하는 시제에 있어서는 과거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청자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의미로서 사용되어, (43)처럼「ほら」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デハナイカ」의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은 화자자신과 청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화자는 청자와의 공통된 인식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청자는 잠재적으로는 알고는 있으나 화자가 상기시켜줌으로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표현이 된다.

한편,「デハナイカ」의 공통인식환기용법에서는 ～じゃない(の,か)↘의 하강(下降) 인터네이션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44) 「ついてくって……誰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誰とって、決まってるじゃない。主人と子供とよ。主人の出張のついでにヨーロッパ、回ってこようと思って。」　（同窓会，p60）

(45)　(送別会の時に女の話が出てくるようすを見て)

「今、笠尾君の送別会の話をしてるんですよね。」

「それって、おかしくないですか。笠尾君に『お疲れ』って言う会じゃない？」

（乙武レポート，p161）

(44)에서는 남편과 아이들과 간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묻는 상대방에 대한 약한 비난이 섞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5)는 보통 송별회라면 「お疲れ」의 격려의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청자들의 의도가 송별회의 의미에서 어긋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デハナイカ」의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에서는 화자는 물론, 청자도 당연히 알고 있을 사실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청자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나타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6) こんなところに駐車したら邪魔になるじゃないか。（文の述べ方，p83）

(47) 何をするんだ。痛いじゃないか！　（文の述べ方，p83）

(48) 「だからオレが子供のおやつぐらい作ってって、言ったじゃないか。」

「忙しくて、そんなことまで...」

「なら、仕事なんてやめちゃえよ。」　（中吊り，p122）

(46)에서는 주차해서는 안 될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어조가 느껴지며, (47)은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화자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토로하며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48)에서도 역시 비난의 어조가 나오는데, 아이가 먹을 간식을 만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じゃない(の,か)～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끝을 흐리거나 약한 어조로 표현되며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게 아쉬움이나 불만, 바램 등의 마음을 표출하기도 한다.

(49)「和実、パパね、もう長くないんだって。癌なんだって。」
「そんな...あんなに元気じゃない。それなんかの間違いよ。」
(天うらら, p158)

(50)「(約束の時間に遅れてきた相手に)遅いじゃない。」
「ごめんごめん」 (蓮沼1993：16)

(49)에서 「あんなに元気じゃない！」에서 「じゃない」는 아버지가 암이라는 사실에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봐)저렇게 건강하잖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암이라는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50)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16]

이처럼 「デハナイカ」의 공통인식환기용법은 문말의 인터네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뉘앙스도 서로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4.1.3 감탄·놀람

「デハナイカ」에는 화자의 새로운 사태 또는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의 감탄·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래의 예문을 들 수 있다.

16) 森山卓郎·安達太郎(1996), 『日本語文法 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6 文の述べ方』, くろしお出版, p83 参照.

(51)「サインをしてください。」「サインなんかできません。」
「名前と日付を入れてくださるだけで感激です。」
「これでいいですか？」と顔を上げたボクは、しばらく固まってしまった。 彼女の後ろに10人近くが並んでいるではないか!
(五体不満足, p217)

(52) [開けてみたら中身が空なのを発見して]
なんだ、空っぽじゃないか! (蓮沼1995：396)

(53) あれ、雪が降っているじゃないか? (安達1999：146)

(51)에서는 「그녀의 뒤에 거의 10명 정도가 줄서 있는 게 아닌가!」로 해석되어 한사람에게 사인하는 동안 10명이나 줄서 있는 데 대한 놀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의 예문에서는 열어보니 텅 비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실제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며, 보통「デハナイカ」의 감탄·놀람의 표현에 있어서는 혼잣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53)은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보다가 눈이 내리고 있는 풍경을 보고 의외의 사실에 대한 놀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デハナイカ」의 감탄·놀람의 용법에서는 ～じゃない(の,か)의 형태로 사용되며, 어느 정도 흥분된 어조로(～아닌가, ～잖아)해석되어 새로운 사실에 대해 놀라는 감정[17]을 표출한다.

(54) 法子 「あら、皆さん、お集まりじゃない(か)」 (蓮沼1995：396)
(55) 美樹 「お味噌ないじゃない、田中さん」
田中 「あ、切れてる……買ってきますよ。」 (蓮沼1995：397)

(54)는 「皆が集まっている」의 상황을 보고 기뻐 감탄하는 상황으로 해

17) 蓮沼昭子(1995), p396

석할 수 있으며, (55)에서는 「お味噌」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요리를 하던 중 「お味噌」가 없는 사실에 놀람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デハナイカ」의 감탄·놀람의 용법은 특정의 의문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인식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말의 인터네이션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약간 끝을 흐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터네이션을 취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의미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ダロウ」와 「デハナイカ」는 담화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56) a. あそこに高いビルが見えるでしょう。 (宮崎2005 : 124)

b. あそこに高いビルが見えるじゃないですか。

(57) a. 太郎 「(ベットで寝ているのは)高木だよ。」

良介 「高木？」

太郎 「ほら、東光大学のボクシング同好会の高木…大学時代によく 試合をしただろう。」 (安達1999 : 165)

b.「ほら、東光大学のボクシング同好会の高木…大学時代によく試合をしたじゃない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6a)는 「ダロウ」의 확인요구용법이며, (57a)의「ダロウ」는 공통인식환기를 나타내고 있다. 「ダロウ」의 확인요구용법과 공통인식환기용법은 (56b), (57b)처럼 「デハナイカ」로 바꾸어 놓아도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ダロウ」와 「デハナイカ」가 항상 상호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사용에 있어 어떤 의미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사용에 있어서 문법적으로나 뉘앙스 상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상호 치환하여 사용가능 한 경우를 살펴보고, 또한 이들 각각의 고유 용법에 있어서 상호 치환이 불가능하거나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나누어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의미의 차이를 상호치환여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18]

5.1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상호치환이 가능한 경우

「ダロウ」와 「デハナイカ」는 의미용법이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상호치환이 가능한 예문이 나타난다.

(58) a.「(タクシーの運転手に) あそこに郵便局が見えるでしょう。
あの角で曲がってちょうだい。」 (蓮沼1995 : 393)
b. あそこに郵便局が見えるじゃない。

(59) a. 純平 : 待ってよ. 誕生日のこと, あやまっただろう。
千恵 : もう, あんたと口ききたくないよ. (101回目)
b. 純平 : 待ってよ. 誕生日のこと, あやまったじゃないか。

(60) 星野 : そんなこと聞いたらお前, 死んだ親父がなげくぞ, お前, 自分と同じ道をおれだどっちかに歩かせたかったんだからな.
a. 純平 : 兄貴だって法学部だっただろう。
星野 : それはそうだけどもなあ. だけどなあ. 親父はお前の方に期待してたんだよ. さて, と, さ, ぼちぼち行くか. (101回目)
b. 純平 : 兄貴だって法学部だったじゃない。

(58a)~(60a)는 「ダロウ」 구문이다. 이것을 (58b)~(60b)처럼「デハナイカ」로 바꾸어 넣어도 자연스러운 문(文)이 된다.

(61) a. 由 理 :突然, どうしちゃったの ?
直 季 :突然じゃないだろ. 4年前に言っといたじゃない。 (眠れる森)
b. 直 季 :突然じゃないだろ. 4年前に言っといただろう。

(62) a. 父 親 : 薫, もうそろそろ帰ってこないか。 5 年したら帰ってくるっていう約束だったじゃないか。

18) 상호치환한 문장이 바른 문장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인 3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薫 ： でも，私... (101回目)

b. 父親：薫，もうそろそろ帰ってこないか。 5 年したら帰ってくるって
いう約束だっただろう。

(63) a. クラスメイト ： 天沢じゃん...なに?

聖司 ： 月島ってこのクラスじゃない?

クラスメイト ： 月島? ああ...いるよ! オーイ! 月島! 面会だぞ-!!!

お.と.こ.の,ほらっ...あそこだよ... (耳をすませば)

b. 聖司 ： 月島ってこのクラスだろう?

(61a)～(63a)는 「デハナイカ」 구문이다. 이것 역시 (61b)～(63b)처럼「ダロウ」로 바꾸어 넣어도 자연스러운 문(文)이 된다.

이들 표현은 앞서 살펴본 확인요구용법과 공통인식환기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의미표현이다. (58a)～(58b)는「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공통인식환기의 용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화자와 청자가 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대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이다. 서로 함께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주의시키는 기능을 가진 표현으로 이 용법의「ダロウ」와「デハナイか」표현 앞에는 서로 공통된 시선에서의 관찰문이 오게 된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는 「ダロウ」표현과 「デハナイカ」표현이 둘 다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뉘앙스 상 「デハナイカ」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중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 경우, 표면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승객이 확실히 어려보이는 운전수에게는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표현이라 하겠다. (59a),(59b)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과거의 지식에 대해 미처 기억해 내지 못하는 부분의 지식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에 이미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가 나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과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표현이다. (60a),(60b)의 예문에서는 화자 자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에게만 집중되는 기대가 부담스러워 「法学部」에 다닌 것은 화자 자신만이 아닌, 청자인 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표현이다. (61a),(61b)는 과거 4년 전에 이미 얘기한 사실을 청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화자에게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ダロウ」또는 「デハナイカ」의 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62a),(62b)역시 과거 약속한 사실에 대하여 청자에게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며, (63a),(63b)의 예문은 확인요구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月島ってこのクラス?」로 표현되는 화자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5.2 상호 치환이 불가능 한 경우

우선 「ダロウ」의 표현은 허용되지만,「デハナイカ」의 표현이 어색한 경우를 살펴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4) a. 良子 : 人事にいる友達に聞いたんだけど 今日辞表出したって...
純平 : 嘘だろう. (101回目)
b. 純平 : ?嘘じゃないか

(65) a. 薫 : ごめん. 起こした.
父親 : いや.
薫 : 疲れたでしょう. (101回目)
b. 薫 : ?疲れたじゃないですか.

(66) a. 達郎 : 「えっ? ああ別に…そうなの。でも、あの彼女はここの常連でしょう」
ウェイター :「そうですね。3年ぐらいのまえはよくいらしてましたけど。」
(101回目)

b. 達郎 : ?「えっ? ああ別に…そうなの。でも、あの彼女はここの常連じゃないですか」

(64a)의 예문에서 「嘘だろう」의 「だろう」는 화자가 대화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사표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이길 바라는 심정으로 청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표현이고, (65a)의 예문에서 「疲れたでしょう」의 「でしょう」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는 아버지의 방을 열자 잠에서 깨어버린 아버지가 피곤해 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66a)의 「でも、あの彼女はここの常連でしょう?」에서는 화자인 達郎가 청자인 ウェイター에게 그녀가 단골손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64a)~(66a)는 「ダロウ」의 고유용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때 (64b)~(66b)처럼「デハナイカ」와의 상호치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맥상 어색한 문이 되기 쉽다.

다음은 「デハナイカ」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만, 「ダロウ」의 표현이 어색한 경우이다.

(67) a. 薫 : 若い子と一緒だった。
桃子 : へえー、やるじゃない。 (101回目)
b. 桃子 : ?へえー、やるだろう。

(68) a.「ここのうどん、おいしい?」「いや、全然おいしくない」
(一口食べてみて)
「おい、このうどん、なかなかおいしいじゃないか」
「あれ、おれ店を間違えたのかな」 (蓮沼1996 : 2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 ?「おい、このうどん、なかなかおいしいだろう」

(67a)는 화자가 청자의 대한 의외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형태로, (67b)의 「やるだろう」처럼 사용되면 문맥상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어색한 문이 되어버린다. (68a)의 예문 역시 청자의 판단에 의해 우동은 「おいしくない」로 나타나지만, 화자가 먹어본 결과 청자의「おいしくない」의 의견에 대해 「꽤 맛있다」로 표현되고 있다. 이때 (68b)의 「なかなかおいしいだろう」로 사용되면 「うどん」을 처음으로 먹어보는 화자의 대화 내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또한 「デハナイカ」의 표현에서 화자의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9) a. なんだ、もう9時じゃないか

b.*なんだ、もう9時だろう。

(70) a. あれ、雪が降っているじゃないか?

b.*あれ、雪が降っているだろう。

(71) a. (失ったものが出てきて)なんだ、こんなところにあるじゃないか

(安達1999：217)

b.*(失ったものが出てきて)なんだ、こんなところにあるだろう。

(69a)~(71a)의 예문들은 청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문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발화하지는 않지만 화자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69a)의 예문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놀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70a)의 예문은 눈이 오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눈이 내

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놀라고 있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71a)의 예문은 잃어버렸던 물건이 발견되어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이들 놀람의 표현은 혼잣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69a)~(71a)는 「デハナイカ」의 고유용법으로써 (69b)~(71b)처럼 「ダロウ」로 치환하였을 경우에는 비문(非文)이 된다.

이상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상호치환 여부를 살펴보았다. 「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공통되는 용법에 있어서는 상호치환이 가능하지만, 「ダロウ」만이 갖는 고유용법과, 「デハナイカ」만이 갖는 고유용법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치환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Ⅵ. 결　　론

이상「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문말의 모달리티 표현에 있어서 각각의 의미・용법에 대한 고찰과 이들 표현의 공통되는 용법에 있어서의 상호치환 여부, 서로 상호치환이 불가능한 고유용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ダロウ」의 의미・용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단순추량과 담화적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담화적용법에 있어서는 확인요구용법과 공통인식환기, 동의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화자와 청자가 갖는 정보량이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따라 서로 다른 용법으로 나타나며, 문말의 인터네이션이 상승인가, 하강인가에 따라 해석되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단순추량용법의 「ダロウ」와 함께 쓰이는 부사와 담화적용법의 「ダロウ」와 함께 쓰이는 부사는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확인요구용법은 화자가 추측한 사실에 대해서 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말의 인터네이션이 상승(上昇)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デハナイカ」는 화자와 청자가 갖는 정보량에 따라서 확인요구와 공통인식환기로 나눌 수 있었다.

확인요구의 경우 정보량에서 우세한 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문말(文末)에서 상승 인터네이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공통인식환기에서는 과거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부분에서 청자가 미처 기억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 용법의「デハナイカ」와 함께 쓰이는 부사로는「ほら」로 나타나며, 「ほら」는 일단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주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의도가 보이며, 문말의 인터네이션은 상승조(上昇調)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탄·놀람의 용법에서는 화자의 새로운 사태 또는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의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3)「ダロウ」와 「デハナイカ」의 각각의 확인요구, 공통인식환기 용법은 서로 상호치환이 가능하였다.

그러나「ダロウ」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고유의 용법을 가지며, 「デハナイカ」는 감탄·놀람의 용법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 고유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치환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ダロウ」와 「デハナイカ」는 사용 장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参 考 文 献

<예문출전>

野島伸司(1991), 『101回目のプロポーズ』, フジテレビ局製作.
群姉ようこ(1992), 『姉の結婚』, 集英社.
山田邦子(1993), 『一家ランラン』, 太田出版.
_____(1994), 『同窓会』, 太田出版.
吉本ばなな(1994), 『中吊り小説』, 新潮文庫.
宮崎　駿(1995), 『耳をすませば』
森山卓郎・安達太郎(1996), 『 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6 文の述べ方』,くろしお出版
乙武洋匡(1998), 『五体不満足』, 講談社.
乙武洋匡(2000), 『乙武レポート』, 講談社.
門野晴子(1998), 『天うらら(ドラマ小説後編)』, NHK出版.
野沢 尚(1998), 『眠れる森』, フジテレビ局製作.
北川悦吏子(1999), 『beautiful life』, TBS放送局製作.
朝日新聞
読売新聞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외국문헌>

<단행본>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蓮沼昭子(1995),「談話における確認行為」 『複文の研究』(下), 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宮島達夫(1996),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1999),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安達太郎(1999),『日本語疑問文における判断の諸相』くろしお出版.

森山卓郎・仁田義雄・工藤浩(2000),『〔日本語の文法3〕モダリティ』, 岩波書店.
宮崎和人・安達太郎・野田春美・高橋信乃(2002),『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宮崎和人(2005), 『現代日本語の疑問表現ー疑いと確認要求ー』, ひつじ書房.

<사전류>

日本国語大辞典 (1980), 日本大辞典刊行会編, 小学館.
日本語教育辞典 (1982), 日本語教育学会編, 大修館書店.

<논문>

森山卓良(1989),「認識のムードとその周辺」仁田義雄・益岡隆志編『日本語のモダリティ』,くろしお出版
_____(1992),「日本語における「推量」をめぐって」『言語研究』(101)
井上 優(1990),「「ダロウネ」否定疑問文について」『日本語学』(12月), 明治書院.
蓮沼昭子(1991),「ヨウダ・ラシイ・ダロウ」『日本語教育論集』, 学習研究社.
_____(1991),「日本語の談話マーカー「だろう」と「じゃないか」の機能ー共通認識喚起の用法を中心にー『第一回小出記念日本語教育研究会論文集』
金水 敏(1992),「談話管理理論からみた「ダロウ」」『神戸大学文学部紀要』(18)
今井新悟(1992),「モダリティ形式のモダリティ度」『日本語教育』(77), 日本語教育学会.
安達太郎(1992),「傾きを持つ疑問文ー情報要求文から情報提供文へー」『日本語教育』(77), 日本語教育学会.
_____(1995),「「だろう」の伝達的な側面」,『日本語教育(』95),日本語教育学会.
石神照雄(1995), 「推重の認識と構文」, 『国語学』174集.
紙谷栄治(1995),「助動詞「だろう」について」,『関西大学文学部創設七〇周年記念特輯』関西大学文学会(44-1～4).
宮崎和人(1995), 「「～ダロウ」をめぐって」『広島修大論集』(35-2).
_____(1996),「確認要求表現と談話構造ー「ダロウ」と「ジャナイカ」の比較ー」『岡山大学文学部紀要』(25)
_____ (1996),「日本語の周辺的な疑問文について」『日本文化学報』(3)
_____(1998),「推量と想像—「ダロウ」とコ「トダロウ」—」『岡山大学文学部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要』(30)
_____(1997),「「だろう」の伝達的な側面」『日本語教育』(95), 日本語教育学会.
工藤真由美(1997),「「～ノデハナイ」の意味と機能」『横浜国立大学人文紀要』(２)
中畠孝幸(1998),「日本語の推量表現について－ダロウとマイー」『甲南大学紀要文学編』(107)
カノックワン・ラオバブラキット(1998),「「ダロウ」の用法と意味」,『筑波応用語学研』(4)
石井和仁(1998),「日本語口語表現の分析－ジャナイかについて－」,福岡大学人文論集(30-2).
重見一行(1999),「「だろう」における談話管理的機能の成立について」『兵庫教育大学言語表現研究』(15)
中北美千子(2000),「談話におけるダロウ・デショウの選択基準」『日本語教育』(107), 日本語教育学会.
高橋匡雄(2000),「《疑似モダリティ形式/二次モダリティ》という用語をめぐって」『立正大学国語国文』(37).
内田安伊子(2002),「「～だろう」による確認に対する応答」『講座日本語教育』(38), 早稲田大学日本語研究教育センター.
森野崇(2004),「モダリティをめぐる諸問題」『国文学研究』(142),早稲田大学国文学会.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문헌>

<단행본>

鄭相哲(2004), 『日本語認識モダリティの機能的研究－ダロウを中心に－』, J&C

<논문>

全成燁(1995), 「日本語疑問表現における「ダロウ」の研究」, 『仁濟論集』 第11卷1号
權珍美(2001), 「「だろう」의 意味와 用法에 관한 一考察－韓國語와의 對應關係를中心으로」, 漢陽大學校大学院.

<Abstract>

A study on *'darou'* in comparison with *'dewanaika'*

Kang, Moon-sun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ung-han

darou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expression indicating speaker's inferring judgement in modern Japanese. But if we analyze an actual instance, we can see that it is frequently used as a conversational meaning. This paper is designed for studying the meaning and usage difference of *darou*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a simple inference and a conversational expression. Also, this looks into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darou* and *dewanaika* by studying the meaning and usage of *dewanaika* which is usually used as a conversational expression. That will be helpful for the correct and proper use of *darou* and *dewanaika*.

First, *darou* can be divided into a simple inference and a conversational usage in the matter of the meaning and usage. A conversational usage can be also classified into a confirmatory requirement usage and a common recognition awakening agreement usage. This classification represents each different usage by who among speaker and listener has more information. And the meaning is represented differently by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a sentence is a rise or a down. Also, the adverb which is using together with *darou* of an inference usage and the adverb which is using together with *darou* of a conversational usage were used similarly.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a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sentence was mostly up because the confirmatory requirement usage is represented as a form of requiring a confirmation about the fact that speaker guessed.

Second, *dewanaika* could be divided into a confirmatory requirement and a common recognition awakening by who among speaker and listener has more information. The confirmatory requirement made an upward tendency of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a sentence due to a form of asking listener who has much information a confirmation. A common recognition awakening functions as a role of evoking the part that listener hasn't yet remembered among the facts speaker and listener shared before. The adverb which is using together with something like hora intends to recall the past memories by having listener's attention focused on,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sentence shows an upward trend. The usage of exclamation and surprise is represented as an expression of surprise when a speaker faces new situation and information.

Third, each a confirmatory requirement and a common recognition awakening usage of *darou* and *dewanaika* was interchangeable together. But *darou* has its own usage of requiring an agreement on his of her own judgement of thinking while *dewanaika* has a usage of exclamation and surprise. Therefore, these are not interchangeable in their own us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